

■ 르포 / 출하 시작된 극조생감귤 선과장 가보니...

도매시장 경락가 천차만별... 최고 4배 차이

가격 하락·인력난 이종고 감귤농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해야” 요청 선과장 불법 단속도 주문

감귤 주산지 서귀포시에서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지속된 비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떨어지며 출하 초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하고, 인력난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찾은 감귤주산지 효돈농협의 한 감귤작목반 선과장. 1년 내내 정성을 쏟으며 생산한 감귤을 수확해 선과장에 입고한 농가들엔 도매시장에서 감귤가격이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8월 말 감귤관측조사에서 당도는 평년보다 0.5브릭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평수 작목반장은 “젓은 비날씨에 태풍이 이어지며 노지감귤 당도가 예년보다 1브릭스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번주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작목반에서 출하한 감귤의 이날 서울가락시장 경락가격은 5kg 기준 최고가가 2만8000원, 최저가는 7000원으로 4배 차이가 났다. 이날 제주감귤의 전국도매시장 평균경락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6일 서귀포시 소재 한 감귤작목반을 찾아 선별과정을 살펴보고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있다.

문미숙기자

가는 7100원으로 1년 전보다 1500원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만큼이나 큰 걱정은 인력난이다. 지금은 출하 초반이라 선과장 주간근무로 작업이 충분하지만 출하물량이 쏟아지는 11월부터 3개월 정도는 연장근무가 불가피하다. 감귤 선별작업이 늦어지면 부패와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다.

농가들은 이날 선과장을 찾은 양윤경 서귀포시장에게 “현재 농가나

영농법인 등 농업현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과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농가들은 “제주에서 생산된 감귤이 서귀포시로 넘어와 상인 선과장을 통해 제주산이라는 이름으로 출하되는 일이 여전히 행정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감귤 산지상황 파악에 나선 서울가락시장 중앙청과 관계자는 “사과

등 과일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맛없는 감귤을 소비자들이 사먹지 않는다. 그만큼 품질이 중요하다. 감귤 포장단위도 현재 5kg 중심에서 3kg 소포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효돈은 감귤 주산지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곳으로 손꼽히는만큼 철저한 품질관리로 차별화시키는데 농가들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오늘부터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제주지역 교권침해사례 2017년 이후 73건 발생

오늘(17일)부터 바뀐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관련 법을 안착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교육청 등의 후속 지원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

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모두 73건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협박, 폭행, 모욕·명예훼손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만 모욕·명예훼손 7건, 손괴 2건, 협박 1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졌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무개정안은 이 같은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 조치에 나서고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게 한 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세분화됐다.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 교원이 오히려 다른 학교로 옮기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되고 행위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 의무도 강화됐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에선 개정 법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가 신설돼 근로자에게는 육아부담, 사업장에는 비용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 신설 등의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구 시기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90일 이내로 늘어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이소진기자

이어도 해역 수온 오르면?... 겨울 따뜻!

국립해양조사원 분석 결과 “수온-한반도 관련성 밝혀”

이어도 인근 해역의 바다 수온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수온자료 분석과 수치모델링 실험을 통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술기 주변해역의 수온과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의 관련성을 밝혀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포항공과대학교 국종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10월 중 국제 저명 학술지인 ‘아시아-태평양 대기과학 저널’ 온라인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연구결과 이어도 해역의 수온은 한반도 기온보다 1~2개월 빨리 변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어도 주변해역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 0.6~0.7℃ 오를 경우 약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도 평년 대비 0.3~0.5℃ 오른다는 관련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온이 내려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술기 해양·대기 관측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상·기후변동을 예측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양조사원은 설명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술기는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 등 해양·기상현상을 감시하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과학 연구거점으로서, 2003년 제주도 남서쪽 149km 떨어진 해역에 건립됐다. 2018년 유엔 산하의 대양관측망네트워크에도 등록됐다. 기지에는 현재 19종, 31점의 해양·기상 관측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수온과 염분을 비롯한 8개 관측항목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해양·대기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술기에서 양질의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훈기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제주서 처리

고유정(36) 의붓아들 사망사건도 제주에서 처리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에서 발생한 고씨의 의붓아들 A(6)군 사망사건이 제주지검으로부터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일 고씨와 고씨의 현 남편인 B(37)씨가 살고 있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은 안방에서 아빠와 자고 있었고, 고씨는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사인은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질식사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고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청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는 끝났다”며 “최종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건 자료가 넘어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전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청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후배 폭행 30대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마을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후배(38)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고막이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